

모든 잡념과 전자의 습성을 다 녹여버려야!

21면에서 계속

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지금,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앉았어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 인간은 도대체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하는 까닭에 이 지금 땅에서나 물에서나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파위가 일어나고 가스가 일어나고, 즉 말하자면 화산이 일어나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거기에서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돌아가면서 그게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생겨는가를 얘기해 봅시다. 바로 그 분비물입니다. 그 분비물에서 물과 흙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생명이란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뛰어넘을 시다, 그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 생물에서부터

나, 선신이나, 선신도 약신도 아닌 부처나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 묘한 거는 우리가 이 미생물이 되기 이전에도 우린 그때도 거기 있었다는 얘깁니다. 우린 그때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얘길 하는데 끝없는 전자의 작동이, 그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의 장소고 오늘의 모습이고 끝없는 그 진리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부모의 얼굴 생긴 거 성격 같은 모든 거를 다 자식이 알아,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지내는 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 이거야. 자식이 하는 일도 또 다 알고 있고, 그 자식이 부모가 하는 일도 또 다 알고 있어. 상세히는 몰라도 항상 안에 있던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숨길 수는 없어.

속에서 불화가 나면 욕을 한마디 해대니까 그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발전을 했고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발전이 되고 흙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천만 가지 만 가지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보석도, 모든 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의 원형을 이룬 이 원자력의 한 점의 마음에서 그 큰 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허망하다, 이 몸뚱이는 허망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몸뚱이는 없어졌어도, 만약에 이 물건을 하나 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천 년이 가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걸 보고 바깥을 삼아서 바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해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벌써 마음으로, 벌써 눈으로 오관을 통해서 보고 자기가 물건을 만들면서 탄 물건을 만들면서 바로 진화시키면서 자기는 발전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벌써 받아들이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이 물질은 남이 볼 땐 이것이 망 그러지고 다 없어졌지만, 목이 떨어지고 쪽이 다 떨어졌지만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해서 벌써 그건 발전이 돼서 탄 걸로 생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죽는다. 몸뚱이 이젠 다 없어졌으니 허무하다 이러죠. 그러나 허무하다는 생각은 마세요.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벌써 전달을 한 겁니다. 모습도 전달을 했고 마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웃을 씩 벗고선 전달이 된 자기의 생산체로 또 준비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가고 오고한 참나에 가고 오는데 무엇을 죽었다고 하고 무엇을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왜 기억 안 해주고 이런 말을 하나요 하겠지만 세상을 밝게 보십시오. 귀를 열고 눈으로 밝게 보신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때 그 시절의 방편을 써서 말씀하신 그 언어가 오늘날 시절이 바뀌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시체(屍體)의 언어로 말을 해줘서 알아들을 만한 문제가 때문에 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좀더 애를 쓰고 하는 거죠. 나도 지금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보다 또 구태연하게 나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만년 수억년이 간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 모습은 작동하는 대로, 시·공간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작동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은 늙는다. 이 몸은 늙으나 육신은 벗어버리고 다시 갈아입으면 될 것이고, 언제나 죽는다 산다 하는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 그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됐고, 벌써

이거를 보고서 이거보다 저게 좀 낫겠다 해서 저걸로 발전을 해서 바로 다른 걸로 생선이 됐고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절이나 어느 곳에 믿음을 가진 데나 또는 위대한 사람을 사람의 모습으로 해놔서 다른 걸로 해놓지 않았죠?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줍니다. 그리고 내일 그거는 이어서 하고요. 글썽 사람도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은 사람, 보이지 않는 데에 마음도 그렇지만 보이는 데 마음도, 사람이 악하나 선하나에 따라서 무엇을 맡겨도, 악한 사람한테 맡겨지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고 선한 사람에게 맡겨지면 좀 윤희할 테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악한 대로 돌아가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한 선한 일은 자기가 한 것만치, 자기가 하는 것대로 캐리캐리 이렇게 맞상대가 되고 모이게 되고 거론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러니 그걸 가지고 업보다, 업보다 하는 겁니다. 유전이다,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어디서 돌보든지 돌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분들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마라 이거야. 지금 나 가기도 바쁘는데 왜 거길 보느냐 이거야, 응? 왜 거길 봐?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걸 만날 작은 그릇에 엎드려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 그게 습이거든.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도 보버려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내도록 자비를 가져야 하 소립니다. 허허허.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더 좋게 해서 내면 좋을 거 아니냐 이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가 넣으면 다시 생선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는 이 집시의 쪽이 떨어졌어!' 이러하면서 말을 하

“ 모든 걸 너의 근본에 맡겨놓음으로써 전자부터의 자기 종문서를 몰락 태울 수 있다 ”

역경을 거쳐서 넘어온 걸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자력으로 그렇게 돌아온 얘기.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해줄 받침이 있다 이거야. 촉각·지각·시각·미각 또는 청각·감각이 뒷부 거기에 뒷받침이 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뒷받침이 왜중으로써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작동을 하느냐? 출창 말했죠. 오신통에 관한 건, 천안통·천이통·숙명통·타심통·신족통·누진통 여섯 가지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시냇물로 하자면, 즉 콤퓨터나 탐지기가 책정거나 또는 망원경이나 통신기 또는 영사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 침투된 겁니다. 그래서 열여덟 가지에 관한 건이 침투돼서 같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어져 있던 말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본다면, 아무 생명이 없다고 하지만 지구가 작동을 하고 돌아가는 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 돌아가느냐는 얘깁니다. 만약에 바람신이 아니라면, 바람이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고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흙도 생명이 있고 흙신이 있고... 목신이 있고, 바람신이 있고, 불신이 있고, 모두 신이야. 인간들도 다 각종 신이란 말입니다. 자신(自神). 그런데 다 자신인데 차원에 따라서 자신이 약신이나, 귀신이

것도 알게 된 거다 이거야. 네 속을 알고 있는 거야. 다. 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그 속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 다르고 걸 다른 사람도 있거든. 그러나 걸 다르고 속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 차마 안 나오질랑 안으로 굴리고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얼굴 표정을 좋게 해라. 참, 종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체물리학이라고 말할 거는 없지만 우리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데도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연방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모습과 모습으로 전달이 되고, 물건과 물건으로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 원시 시절에 만약에 그릇이 없어서 뿔 꿰어먹지 못했다 할 때 어딘가가 마음에서 이걸 이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흙을 개서 동그렇게 해서 말려서 불에다 놓으니까 그것이 익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끓여 먹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그 그릇이 부서졌어도 부서진 그 쪼가리는 있었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야쿠르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먹습니다. 석유로도 그것을 만들어서 쓰고,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발전이 된

“ 귀를 열고 눈으로 밝게 본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 ”

저는요,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죽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생명이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거를 거저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만 죽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항상 믿고 열쇠를 맡기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조금도 괘씸은 없는데 윤희통성이 조금 없어, 좀더 지혜가 있고 그러면 좋을 걸!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너무나 착하니까, 우주의 법망에 어디든지 통과 안되는 게 없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전부 있기 때문에, 응!

아까 단계 단계 얘기했죠? 원자력으로부터 전자력 또는 그 무전자로부터 무전력, 이게 한데 있었는데 하면 지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탐지기가 천안통,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단계 단계 얘기, 이것이 인간에게도 다 주어져 있고 이 지구에도 주어져 있고 어떠한 물체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별성에도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천체 통신이 가능하죠. 그런 거와 같

게 된다 이거야.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이거야.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굽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아야 이거야.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어, 응!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스스로 날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전이 되면 '아, 그때는 그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었구나!' 하고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거야.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는 얘기가. 고정되게만 보지 마라 이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을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느냐 이거야.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나 고질 병자들은, 고질 병이라는 거는 그 습을 놓지 못한다면 고질병이다 이거야.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고 내일은 땅에서 나는 물건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또는 자를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했는지를 한마디 해드리죠. 그럼 감사합니다.

86년 6월 20일

전통따주가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서 예를 들면, 급제 시 임지손뚝 뿌리 일을 반말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사전 병 예방 및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양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교학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가지도사로 활동
- 생활 속 비상따주기로 활용(동,급제,기절,경기 등)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원장 직강<공학박사, 교수>)

6. 강 좌 일

- 2007년 6월 29일(금) ~ 7월 1일(토)[2박 3일]

7. 특징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1회 수강으로 완료함
- 비법 교재 및 사할기 지급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 문의시 세부 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립니다.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길

수용자 孝 문학작품

누군가와 함께라면

판/매/합/니/다

수용자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격워주기 위하여 공모했던
수용자 효 문학작품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2권 구매시 BBS창주봉교방송
담문집 CD 또는 티인 증정

1권 구매시 : 12,000원 / 2권 구매시 23,000원

문의 및 구입안내 : (043) 732-5560 대성사